

일 지역 중학생의 성태도와 성지식, 사회적지지 간 상관관계

Relationships Among Sexual Attitudes, Sexual Knowledge and Social Support of Middle School Students

홍정민*, 황은희**

동명대학교 간호학과*, 원광대학교 간호학과**

Chong-Min Hong(mingkie01@hanmail.net)*, Eun-Hee Hwang(ehh@wku.ac.kr)**

요약

본 연구는 급격한 신체적 성숙과 생리적 변화시기에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태도와 성지식, 사회적지지 정도를 파악하고 성태도와 상관관계를 고찰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일 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 139명을 대상으로 2010년 9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LSD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태도는 57.90 ± 8.36 점이었고, 성지식은 17.33 ± 7.42 점, 사회적지지는 62.49 ± 15.63 점이었다. 성태도와 성지식에서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성태도와 사회적지지간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성지식과 사회적지지간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성태도와 성지식간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들의 성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족을 포함한다면 중학생의 성태도 및 성지식의 향상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중심어 : | 성태도 | 성지식 | 사회적지지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sexual attitudes, sexual knowledge and social support of middle school student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The subjects were 139 students at the freshman stage from a middle school.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6th to December 10th, 2010 b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19.0 program. The subjects showed less opened sexual attitudes and lower level of sexual knowledge than high school students. Sexual attitudes and knowledg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And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sexual attitudes and family support, sexual knowledge and social support respective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differentiated sexual education program have to be developed by considering student's gender. Also, family and school have important duties to increase sexual attitudes and knowledge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 keyword : | Sexual Attitudes | Sexual Knowledge | Social Support |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 됨

접수일자 : 2013년 05월 29일

수정일자 : 2013년 06월 21일

심사완료일 : 2013년 07월 05일

교신저자 : 황은희, e-mail : ehh@wk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상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 과정을 경험하는 시기로, 특히 중학교 시기에는 사춘기와 함께 남학생은 몽정, 여학생은 초경을 경험하는 등의 생리적 변화가 나타난다. 이들에게 성(性)의 본질이나, 의미, 기능 등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발달과제이다[1]. 그러나 오늘날의 청소년은 서구의 성개방 풍조의 유입, 성의 도구화와 상품화로 인한 지속적인 성문화의 범람, 향락산업의 번성, 여과되지 않은 각종 대중매체의 노출,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음란물 등으로 성충동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성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2].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음란물, 잡지, 비디오를 통한 성에 대한 정보 접촉이 확대되고 있으며 성에 대하여 능동적인 태도로 변화하고 있어 더욱 성충동에 취약해진 성문화 속에 놓여있다[3].

실제로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태도에 관한 김종출[4]의 연구에 의하면 중학생들 중에서 남학생의 18.8%, 여학생의 20.1%가 이성친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성관계를 경험한 경우도 17.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성관계 경험시기는 14-16세가 가장 많아 중학교 시기가 성적 충동과 행동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옮겨가는 중학교 1학년의 학생들은 청소년기로 들어서면서 갑작스럽게 이러한 성에 노출되면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최근의 한 기사에서는 중·고등학생의 첫 성경험의 평균 연령이 13.7세로 보고되었으며[5], 이 또한 중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이다. 여성가족부[6]의 자료에서는 중·고등학생 중에서 성관계 경험자는 3.1%이었고, 이들 중 성관계를 통해 임신하거나 임신하게 한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이 24.1%에 달한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의 성은 소위 건강위험행동으로 부각되고 있는 음주, 흡연, 약물 사용, 인터넷 및 게임중독 등과 중복적인 양상을 보인다[7]. 그리고 주목해야 할 점은 초등·중·고등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또래 성범죄 중에서 중학생의 성범죄가 54.2%로 고등학생의 성범죄를

앞지르고 있다는 사실이며,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8]. 이 또한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서 학생들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며, 또 다른 학생들은 이러한 위험행위를 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성문제는 교정되어야 한다.

중학생들이 낙태를 피임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원조교제와 혼전 성관계에 대해 허용적인 성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9]는 중학생들의 성태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청소년들은 또한 성충동의 남녀 차이, 피임법, AIDS에 관한 지식 등 구체적인 성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종수[11]의 연구에서 최초로 성 지식을 습득하는 출처가 친구(41.7%), 대중매체(21.5%)로, 실제 성교육의 책임이 있는 부모님과 선생님보다 앞서며, 이는 중학생이 올바른 성 지식을 습득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올바른 성의 기본은 올바른 성 지식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중학생의 성지식에 관한 고찰 역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성지식 및 성태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중학교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성지식 및 성태도에 대하여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높은 수준의 성지식을 보유하고, 그에 맞는 올바른 성태도를 확립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청소년의 임신, 낙태, 성범죄, 원조교제 등과 같은 성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지지만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제공해 줌으로써 인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3][14]. 급격한 신체적 및 심리적 변화를 겪는 청소년 시기에 가정, 또래 집단 및 학교에서 얻는 관심, 위로, 격려 등의 사회적지지는 부정적인 생활 경험에서 자제심을 잃고 쉽게 보일 수 있는 공격 행동을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15]. 이상준[16]은 청소년의 인터넷 섹스중독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 지지와 친구 지지가 낮을수록 인터넷 섹스에 더 많이 중독되는 것으로 밝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성 문제를 중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에 대한 태도는

보통 한번 형성되면 그것이 평생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성에 대한 태도를 올바르게 도덕적인 면으로 형성되어지게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청소년의 성은 성태도, 성지식, 성행동에 관한 실태조사 위주의 연구가 많았고, 문제를 증개할 수 있는 요인 특히 사회적지지와의 관련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인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성태도와 성지식, 사회적지지의 정도를 파악하고 성태도, 성지식, 사회적지지간의 상관관계를 고찰하여 중학생의 올바른 성태도 확립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성태도, 성지식, 사회적지지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 성지식, 사회적지지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성태도, 성지식, 사회적지지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 지역 중학교 1학년의 성태도, 성지식, 사회적지지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양식

본 연구의 표본수는 상관계수 도출을 위해 G power 3 analysis software를 이용하였고, 유의수준 0.05, medium effect size 0.30, power 0.90으로 계산하여 총 109명이 산출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K시 소재 2개 중학교 1학년 학생 146명을 임의 표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0년 9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었으며, 해당 학교의 보건교사와 담임교

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연구자로부터 사전교육을 받은 보건교사에 의해 실시되었다.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및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에 동의하는 사전동의서를 받아 연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만 구조화된 146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 응답시간은 10-15분이 소요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146부 중 자료처리에 부적절한 설문 7부를 제외한 139부(95.2%)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도구

3.1 성태도

본 연구에서 성태도의 측정은 국내외 여러 연구자의 자료를 기반으로 강효윤[17]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성의식, 성행위, 순결, 이중적 성 가치관, 음란매체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5문항으로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측정된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하여 개방적 성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강효윤[18]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87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64$ 이었다.

3.2 성지식

본 연구에서 성지식에 대한 도구는 국내외 여러 연구자의 자료를 기반으로 전경숙, 이효영, 이선재[18]가 수정, 보완한 35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생식생리, 성심리, 임신, 피임 및 낙태, 성병 및 에이즈, 성폭력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답은 1점, 오답 및 모른다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alpha=.85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74$ 였다.

3.3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지지 도구는 Gregory D. Zimet, Nancy W. Dahlem, Sara G. Zime, Gordon K. Farley에 의해 개발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MSPSS) 척도를 이옥선[19]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12문항의 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유의미한 주변인지지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전적으로 그렇다’의 7점의 7점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옥선[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52$ 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적 특성 및 성태도, 성지식, 사회적지지 점수는 빈도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 성지식, 사회적지지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LSD 방법을 이용하였다. 성태도, 성지식, 사회적지지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방법을 이용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중학교 1학년 학생들로 일반화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총 139명 중 남학생이 43.2%, 여학생이 56.8%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43.2%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28.1%, 불교 19.4%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다 46.8%로 가장 많았고, 매우 좋다 18.0%이었으며, 나쁘다고 응답한 자가 1.4%이었다. 그리고 이성친구가 있다고 한 대상자는 11.5%이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39)

일반적 특성	변수	n	%
성별	남성	60	43.2
	여성	79	56.8
종교	기독교	39	28.1
	가톨릭	11	7.9
	불교	27	19.4
	무교	60	43.2
	기타	2	1.4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25	18.0
	좋다	65	46.8
	보통이다	47	33.8
	나쁘다	2	1.4
이성친구	있음	16	11.5
	없음	123	88.5

표 2. 성태도, 성지식, 사회적지지 (N=139)

변수	Min	Max	M \pm SD	
성태도	총점	34.29	100.00	57.90 \pm 8.36
	성의식	20.00	100.00	58.85 \pm 10.24
	성행위	25.00	100.00	57.63 \pm 11.19
	순결	27.50	100.00	57.03 \pm 10.61
	이중적 성가치관	20.00	100.00	51.89 \pm 13.99
	음란매체	20.00	100.00	67.29 \pm 15.75
성지식	총점	0	35.00	17.33 \pm 7.42
	생식생리	0	8.00	4.78 \pm 2.12
	성심리	0	3.00	1.85 \pm 0.88
	임신	0	8.00	3.92 \pm 2.11
	피임 및 낙태	0	5.00	2.12 \pm 1.39
	성병 및 에이즈	0	10.00	3.88 \pm 2.43
	성폭력	0	1.00	0.78 \pm 0.42
사회적 지지	총점	12.00	84.00	62.49 \pm 15.63
	가족	4.00	28.00	20.88 \pm 15.63
	친구	4.00	28.00	20.88 \pm 5.65
	주변인	4.00	28.00	20.73 \pm 5.59

2. 대상자의 성태도, 성지식, 사회적지지

대상자의 성태도, 성지식과 사회적지지의 정도는 [표 2]와 같다. 성태도의 총점은 100점 만점 중 57.90 \pm 8.36점이었고, 하위영역 중 음란매체에 대한 점수가 67.29 \pm 15.7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의식 58.85 \pm 10.24점, 성행위 57.63 \pm 11.1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지식의 총점은 35점 만점 중 17.33 \pm 7.42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 생식생리는 8점 만점 중 4.78 \pm 2.12점, 성심리는 3점 만점 중 1.85 \pm 0.88점, 임신은 8점 만점 중 3.92 \pm 2.11, 피임 및 낙태는 5점 만점 중 2.12 \pm 1.39점, 성병 및 에이즈는 10점 만점 중 3.88 \pm 2.43점, 성폭력은 1점 만점 중 0.78 \pm 0.42점이었다.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 (N=139)

일반적 특성	성태도 총점		성의식		성행위		순결		이중적 성가치관		음란매체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성별												
남성	59.29±9.09	1.712	59.97±11.66	1.122	58.88±11.13	1.148	59.88±11.03	2.823	56.00±13.04	3.108	63.11±15.93	-2.793
여성	56.85±7.64	.089	58.00±9.00	.264	56.68±11.21	.253	54.87±9.80	.005	48.78±13.96	.002	70.46±14.93	.006
종교												
기독교	58.42±7.03		60.36±9.36		59.42±9.91		55.83±9.27		51.37±14.26		70.26±13.32	
가톨릭	55.84±4.29		56.73±8.40		57.95±4.72		56.82±9.02		49.09±12.92		58.18±17.41	
불교	60.28±9.52	1.541 .194	62.00±10.52	2.073 .088	59.35±10.30	1.627 .171	60.00±12.15	0.813 .519	54.69±14.83	0.460 .765	68.89±13.46	1.428 .228
무교	57.20±9.01		57.23±10.66		56.13±12.83		56.71±11.07		51.67±13.93		66.44±17.36	
기타	48.89±2.83		47.00±4.24		42.50±7.07		51.25±1.77		46.67±9.43		63.33±23.57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59.02±10.31		60.00±12.25		59.50±11.04		59.10±13.30		52.40±18.45		67.47±17.25	
좋다	57.71±7.31	0.179	58.34±9.19	0.585	56.88±11.09	0.331	58.12±10.06	1.676	52.51±13.33	0.169	67.08±17.07	0.009
보통이다	57.59±8.87	.910	58.60±10.72	.626	57.61±11.68	.803	54.79±9.57	.175	50.92±12.43	.917	67.52±13.45	.999
나쁘다	57.71±0.81		67.00±1.41		58.75±8.84		48.75±5.30		48.33±16.50		66.67±9.43	
이성친구												
있음	57.93±7.19	0.013 .990	59.88±8.28	0.425 .672	54.06±8.80	-1.358 .177	61.25±11.18	1.703 .091	54.38±14.02	0.753 .453	60.00±20.22	-1.990 .049
없음	57.90±8.52		58.72±10.49		58.09±11.41		56.48±10.45		51.57±14.01		68.24±14.91	

사회적지지는 84점 만점 중 평균 62.49±15.63점이었고, 각 하위영역은 28점 만점 중 가족지지가 20.88±15.63점, 친구지지 20.88±5.65점, 주변인의 지지가 20.73±5.59점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성태도, 성지식, 사회적지지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는 [표 3]

과 같다. 성태도의 총점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성태도의 하위영역인 순결(t=2.823, p=.005), 이중적 성가치관(t=3.108, p=.002), 음란매체(t=-2.793, p=.006)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고, 음란매체 측면에서는 이성친구 유무에 따라 차이(t=-1.990, p=.049)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순결과 이중적 성가치관은 남학생이, 음란매체는 이성친구가 없는 군에서 점수가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N=139)

일반적 특성	성지식 총점		생식생리		성심리		임신		피임낙태		성병, 에이즈		성폭력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성별														
남성	17.17±8.63	-0.218	4.70±2.30	-0.407	1.83±0.98	-0.182	3.42±2.33	-2.428	2.20±2.73	0.563	4.33±2.73	1.948	0.68±0.47	-2.259
여성	17.46±6.41	.828	4.85±1.98	.685	1.86±0.80	.856	4.30±1.84	.017	3.53±2.12	.575	3.53±2.12	.053	0.85±0.36	.026
종교														
기독교	16.92±6.81		4.72±1.99		1.79±0.89		3.56±1.96		2.05±1.30		3.97±2.31		0.82±0.39	
가톨릭	19.45±5.94		5.00±1.90		1.91±0.54		4.82±0.98		2.55±1.51		4.46±.62		0.73±0.47	
불교	16.41±7.67	0.923 .452	4.48±2.33	0.910 .460	1.78±1.01	0.698 .595	3.78±2.21	1.370 .248	1.85±1.23	0.987 .417	3.95±2.92	0.273 .895	0.67±0.48	0.970 .426
무교	17.87±7.89		5.00±2.16		1.93±0.84		4.12±2.25		2.25±1.49		3.75±2.30		0.82±0.39	
기타	10.00±8.49		2.50±0.71		1.00±1.41		2.00±2.83		1.00±1.41		3.00±1.41		0.50±0.71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다	17.40±7.67		4.52±2.03		1.72±0.98		4.04±1.93		2.28±1.24		4.08±3.20		0.76±0.44	
좋다	17.20±7.63	0.013	4.89±2.17	0.263	1.82±0.88	0.467	3.78±2.25	0.167	2.08±1.48	0.135	3.86±2.20	0.086	0.77±0.42	0.398
보통이다	17.47±7.22	.998	4.75±2.09	.852	1.96±0.81	.706	4.04±2.07	.918	2.11±1.39	.939	3.81±2.34	.968	0.71±0.40	.754
나쁘다	17.50±7.78		5.50±3.54		2.00±1.41		4.00±0.00		2.00±0.00		3.50±2.12		0.50±0.71	
이성친구														
있음	16.94±9.37	-0.183	4.75±2.77	-0.054	1.81±0.83	-0.176	3.31±2.47	-1.231	2.50±1.90	0.873	3.75±2.14	-0.223	0.81±0.40	0.360
없음	17.38±7.17	.857	4.79±2.03	.958	1.85±0.88	.860	4.00±2.05	.221	2.07±1.31	.395	3.89±2.47	.824	0.77±0.42	.719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N=139)

일반적 특성	사회적지지 총점			가족			친구			주변인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성별												
남성	57.53±16.03			19.65±5.86			18.88±5.48			19.00±5.78		
여성	66.25±14.30	-3.379	.001	21.81±5.94	-2.136	.034	22.39±5.32	-3.802	<.001	22.05±5.09	-3.302	.001
종교												
기독교	60.79±14.00			19.85±6.08			20.83±4.68			20.41±5.22		
가톨릭	67.73±18.49			24.27±5.73			21.36±7.58			22.09±6.80		
불교	63.37±18.26	1.080	.369	21.93±6.44	1.718	.150	20.93±6.41	0.968	.427	20.52±6.23	0.757	.555
무교	62.82±14.90			20.60±5.65			21.23±5.50			20.98±5.37		
기타	45.00±4.24			16.50±0.71			13.50±3.54			15.00±1.41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a	67.68±20.21			22.40±7.42			22.56±6.56			22.72±6.94		
좋다 ^b	63.82±3.76			21.32±5.48			21.45±5.06			21.05±5.02		
보통이다 ^c	58.47±14.64	2.706	.048	19.72±5.67	2.046	.110	19.26±5.68	2.361	.074	19.49±5.30	2.698	.048
나쁘다 ^d	49.00±1.41		a/c	14.50±2.12			19.50±4.95			15.00±1.41		a/c
이성친구												
있음	63.44±18.16			20.63±5.67			20.94±6.32			20.88±7.05		
없음	62.50±15.35	-0.014	.989	20.91±6.04	-0.179	.858	20.87±5.58	0.045	.964	20.72±5.40	0.107	.91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성지식의 총점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영역인 임신($t=-2.428, p=.017$)과 성폭력($t=-2.259, p=.026$)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임신과 성폭력 항목 점수가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차이는 [표 5]와 같이, 성별에 따라 사회적지지($t=-3.379, p=.001$)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각 하위영역인 가족지지($t=-2.136, p=.034$), 친구지지($t=-3.802, p<.001$), 주변인지지($t=-3.302, p=.001$) 모두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사회적지지 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사회적지지($F=2.706, p=.048$)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군이 보통인 군에 비해 점수가 더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위영역 중, 특히 주변인지지($F=2.698, p=.048$)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성태도, 성지식, 사회적지지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태도와 성지식, 사회적지지 간의 상관관계는 [표 6]과 같다. 성태도는 사회적지지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사회적지지의 하위영역인 가족지지와 성태도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성지식

도 사회적지지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하위영역인 가족지지, 친구지지, 주변인지지 모두에서 성지식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내었다. 그러나 성태도와 성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6. 성태도, 성지식, 사회적지지 간의 상관관계

	성지식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가족	친구	주변인
		r			
		p			
성태도	-0.050 .556	-0.177 .037	-0.176 .038	-0.142 .096	-0.164 .054
성지식	1	0.278 .001	0.301 <.001	0.260 .002	0.191 .024
사회적지지		1	0.882 <.001	0.917 <.001	0.927 <.001
가족			1	0.681 <.001	0.707 <.001
친구				1	0.826 <.001
주변인					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의 성태도와 성지식, 사회적지지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성태도 총점은 100점 만점 중 57.90점이었고, 하위영역 중 음란매체에 대해 가장 개방

적이었으며, 가장 보수적인 항목은 이중적 성가치관이 었다. 이 결과는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강효윤[17]의 대학생 성태도에 대한 연구에서 남자대학생 64.64점, 여자 대학생 60.73점보다 낮은 점수이다. 배경의와 강양희 [20]는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성태도가 68점 만점에서 43.0점으로 측정되었고,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3.24점으로, 본 연구결과의 점수보다 낮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중학생의 성태도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리고 양야기[2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학생 시기에 음란물 접촉이 가장 많았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성태도의 하위영역 중 음란매체에 대해 가장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이 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음란매체나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음란물 접촉과 성범죄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22] 이러한 매체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성태도의 하위영역 중 순결, 이중적 성가치관에서 남학생이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음란매체에서는 여학생과 이성친구가 없는 군에서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식과 김윤정[23]은 청소년들의 사랑과 성태도에 관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개방적이라고 하였고,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본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중·고등학교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명숙과 석정원[24]의 연구에서도 이성친구는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상희와 윤우철[25]의 연구에서는 남자대학생의 경우 이성친구 경험이 많은 대상자가 적은 대상자에 비해 더 개방적인 성태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본 연구 대상자가 중학교 1학년이며 이성친구가 있는 사람이 11.5%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의 이성친구 유무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를 재확인하는 추후연구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이성친구 유무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강효윤[17]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음란매체에서 남학생이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결과와 상반되며, 신미와 유미숙[26]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음란매체의 접촉경험이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더 많다는 결과도 본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따라서 중학생과 대학생에서 성별에 따른 음란매체의 성태도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음란매체 접촉경험과 음란매체의 성태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성지식의 총점은 35점 만점 중 17.33점이었고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49.5점인데, 이는 고등학생의 57.76점보다 낮은 수준이며[24], 중학생의 성지식이 고등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학년 진급에 따른 성지식이 증가하는 것은 이성교제의 경험, 성교육 경험 혹은 친구들로부터의 정보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되며, 추후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대상자의 성지식은 하위영역인 임신과 성폭력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야기[21], 이구실[12], 이성옥[27] 등의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초경을 시작하면서 임신과 이와 관련된 성폭력 등에 대한 성지식을 얻는 기회가 있고,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부담을 가지게 되면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많은 성폭력 사건이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임신, 성폭력에 초점을 두게 하는 것이라고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성지식은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 형성에 기본이 되며[28] 성의 생식생리, 성심리, 피임과 낙태, 성병과 에이즈의 하위영역에 대한 지식 습득도 중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된 중학생의 성지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성병 및 에이즈의 하위영역에서는 총점 10점 중 3.88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8.8점에 그친다. 그리고 피임 및 낙태는 100점 만점 중 42.4점, 임신은 100점 만점에 49점으로 모두 100점 만점에서 50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매우 낮다. 그에 비하여 성심리는 61.6점, 생식생리는 59점으로 다소 높은 편이나 60점 전후에 그치는 수준이며, 전체 성지식에 대한 총점은 49.5점으로 이 또한 5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성에

대한 교육이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대상자가 중학교 1학년 학생임을 감안하여 볼 때 이들을 성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욱 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중학교 1학년의 수준에 맞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성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대상자의 성태도는 사회적지지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하위영역 중 가족지지가 성태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성지식도 사회적지지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하위영역인 가족지지, 친구지지, 주변인지지 모두에서 성지식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내었다. 즉, 가족으로부터의 지지정도가 낮을수록 성태도가 개방적이고,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성지식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중학생의 경우, 성지식과 성태도의 측면에서 가족이나 친구, 주변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인영, 박인선, 백연옥[29]은 청소년의 성행동 위험요인 다섯 가지를 주장하면서 가족요인과 문제 행동을 보이는 친구요인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은 대중매체나 친구를 통해 성지식을 획득하는 등, 흥미위주의 부정확한 성지식을 획득하고 있고[21], 음란매체의 주된 사용 장소가 자신의 집인 것으로 나타나[30] 가족 특히 부모의 자녀 성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책임감을 뒷받침한다. 고명숙과 석정원[24]은 여학생들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보수적인 가정의 청소년의 성지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보수적인 부모들이 성교육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하여 가정의 분위기와 부모들의 성향도 청소년의 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학생의 성교육에 있어 학교 뿐만 아니라 부모의 참여 역시 교육의 효과를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성태도와 성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박미숙[31]은 연구를 통해 성지식이 높을수록 개방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여 본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의 성지식의 정도가 100점 만점으로 하였을 때 50점에도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

에 너무 낮은 성지식 점수와 성태도 점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성지식이 높아질수록 성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연구 결과[32] 역시 두 개념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동일한 연구 대상자에게 본 연구를 확대, 반복하여 중학교 1학년의 성지식과 성태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성지식과 성태도의 상관관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학교 1학년의 성지식과 성태도의 수준에 맞는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이용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한다.

둘째, 부모가 중학교 1학년 학생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한다.

셋째, 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성지식 향상 정도에 따른 성태도의 변화여부를 확인하는, 성지식과 성태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추후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성별에 따른 이성친구의 유무가 성태도, 성지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1] 이세희, *청소년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2] 김희경, 이현주, 박보림, 김향수, 림금란, "청소년을 위한 성 허용성 개념분석",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제10권, 제2호, pp.69-83, 2009.
- [3] 권혜진, 김경희, 함미영, 염순교, 조주연, 최미혜, "남자 중학생의 성허용성, 성태도 및 성정체성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제15권, 제1호, pp.99-108, 2006.
- [4] 김종출, *청소년의 성 의식 및 성 실태 조사 연구 : 중, 고생들의 성 경험 유무를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5]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

- no=370144
- [6] 여성가족부, 2012년 청소년유해환경 집중 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2.
- [7] 손애리, “서울시 청소년의 흡연, 음주 및 성행동”, 한국알코올과학회지, 제11권, 제1호, pp.77-87, 2010.
- [8]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idxno=483044>
- [9] 김은주, 엄영희, 이규은, 차복경, 조선화, “중학생의 가정환경 요인에 따른 성교육 후 성태도 변화”, 기본간호학회지, 제12권, 제3호, pp.362-373, 2005.
- [10]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이성교제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 [11] 박종수, 중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12] 이구실, 남·녀 중학생의 성지식 및 태도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13] S. Cohen and H. Hoberman,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33, pp.99-125, 1983.
- [14] 한미현,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15] 장혜정,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성역할 정체감, 자기 통제 및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16] 이상준, “인터넷 섹스중독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신건강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5권, pp.341-364, 2003.
- [17] 강효윤, 일부 대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태도·행동의 특성과 성경험 예측 요인 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18] 전경숙, 이효영, 이선자, “대학생의 성지식, 태도, 행동실태 및 성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21권, 제1호, pp.45-68, 2004.
- [19] 이옥선, 척수장애인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와 재활동기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20] 배경의, 강양희, “부산지역 남자 고등학생의 성태도, 성행동 및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건강학회지, 제10권, 제1호, pp.36-47, 2007.
- [21] 양야기, “고등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8권, 제3호, pp.159-169, 2012.
- [22] 김은실, 김귀정, 김봉한, “고등학생들의 사이버 음란물 접촉과 성범죄와의 관계성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6호, pp.8-17, 2011.
- [23] 이창식, 김윤정, “청소년들의 사랑과 성태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지각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1호, pp.277-296, 2003.
- [24] 고명숙, 석정원, “성관련 특성에 따른 여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가치관의 차이”, 아동간호학회지, 제17권, 제3호, pp.153-160, 2011.
- [25] 김상희, 윤우철, “남자 대학생의 성의식과 성태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6권, 제2호, pp.248-257, 2012.
- [26] 신미, 유미숙, “청소년 성발달에 따른 자극추구 성향과 음란매체 접촉경험 및 반응의 영향력 분석”, 제17권, 제11호, pp.205-225, 2010.
- [27] 이성옥, “일개 중학교 남, 여 중학생들의 성지식, 태도 및 관심도에 관한 실태”, 공주문화대학 논문집, 제27권, pp.269-283, 2000.
- [28] 김난경, 여학생의 성지식, 성가치관 및 성태도의 관계, 삼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29] 한인영, 박인선, 백연옥, “청소년의 성행동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제12권, 제1호, pp.138-148, 2001.
- [30] 윤지영, 울산시 중학생의 음란매체 접촉 실태와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에 관한 조사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31] 박미숙,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도 비교 분석,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32] 김미숙, “일개 전문대학생들의 성 행동 영향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5호, pp.252-258, 2010.

저 자 소 개

홍 정 민(Chong-Min Hong)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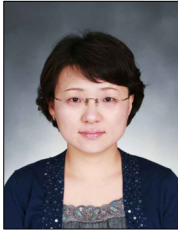


- 200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간호학사)
- 200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간호학석사)
- 201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동명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성인간호, 간호교육, 성교육

황 은 희(Eun-Hee Hwang)

정회원



- 199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간호학사)
- 200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간호학석사)
- 200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간호학박사)

▪ 2009년 9월 ~ 현재 : 원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수면, 우울, 탄력성, 성